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수산연구본부	성명	고동훈	직급	전문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국제행사 주최 ☒ 세미나, 교육, 훈련 ☒ 국제행사 참가 ☒ 기타 (국제행사 발표 3건)					
관련사업 (예산항목)	○ 관련사업 : 없음 * 참고1: 본 출장자(고동훈)의 대한 행사주최측의 출장경비(항공료 및 숙박비 등) 전액지원 예정 * 참고2: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외교부가 발표한 여행(출장)금지국에는 튀르키예가 제외되어 출장 가능. 여행 금지국으로는 아르메니아, 아이티,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팔레스타인, 필리핀 등 13개국 포함 ○ 출장목적 ☐ 2026 MTCON(The Conference on Managing Tourism Across Continents) 주제 발표 (3건) ○ 발표명 I: AI-Integrated Blockchain Traceability in Food Systems Derived from Smart Aquaculture: Applications in the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ID 181, 발표자: 이상철(부경대학교 교수), 고동훈(KMI 전문연구원)) ○ 발표명 II: Surveying Recreational Fishing Catch from Charter Boats in South Korea: A Methodological Overview (ID 182, 발표자: 구성우(한국수산자원공단 실장), 고동훈(KMI 전문연구원)) ○ 발표명 III: National Survey of Marine Recreational Fishing Effort and Expenditure: the Case of South Korea (ID 183, 발표자: 고동훈(KMI 전문연구원), 이상철(부경대학교 교수)) ☐ 2026 MTCON(The Conference on Managing Tourism Across Continents) 워크숍·세션 참석 ○ (Research 워크숍 참석) Destination Marketing and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in Toursim 등의 관련 주제발표 청강·학습 ○ (Concurrent 세션 참석) New Business Models in Tourism, Special Interest Toursim, Tourism and Economy 등의 관련 주제발표 청강·학습 ○ (Virtual 세션 참석) Hospitality and Smart Toursim, Media and Technology in Tourism 등의 관련 주제발표 청강·학습 ☐ 해양수산부 "2026년 낚시어선 어획량 등 조사 사업" 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수행 중인 "2026년 낚시어선 어획량 등 조사 사업(해양수산부)" 관련 낚시쓰레기 및 낚시어선 이용객 지출규모 등에 대한 해외 현지조사 수행 예정 ○ MTCON 행사 참석과 연계한 낚시 관련 국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 반영 ☐ 출장지 대체 ☒ 해당없음(수탁)		
출장기간	2026.4.26.~5.3.(7박 8일)			출장지	튀르키예, 안탈야(Antalya)	

출장일정 (출장자: 고동훈)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4.26(일) ~ 4.27(월)	부산(22:45, +1) → 인천(10:15) → 이스탄불(18:15) → 안탈야(19:40) → 숙소 도착(21:30)	시외고속버스 이동 항공 이동 대중교통 이동	고속버스(부산→인천) TK021 TK2446
	4.28(화)	안탈야(Antalya)	(오전) 2026 MTCO 참가자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오후) Konyaalt 지역 낚시쓰레기 현장조사	대중교통 이용
	4.29(수)	안탈야(Antalya)	(오전) Research 워크숍 참석 (오후) 낚시어선 어획량 해외사례 전문가 자문	-
	4.30(목)	안탈야(Antalya)	(오전) Concurrent 세션 참석 (오후) 2026 MTCO 주제발표 I & II	-
	5.1(금)	안탈야(Antalya)	(오전) Virtual 세션 참석 (오후) 2026 MTCO 주제발표 III	-
	5.2(토) ~ 5.3(일)	안탈야(20:40, +1) → 이스탄불(01:50) → 서울(17:40,+1) → 부산(20:35)	항공 이동	TK2431 TK090 KE1407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2026 MTCON(The Conference on Managing Tourism Across Continents) 워크숍세션 참석 및 주제 발표 (3건) - 해양수산부 “2026년 낚시어선 어획량 등 조사 사업” 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달성 정도) 당초 목적 달성 ○ 주요 성과 - 2026 MTCON(The Conference on Managing Tourism Across Continents) 주제 발표(3건)를 통한 우리나라 낚시어선 어획량 및 낚시어선 이용객 지출 규모 조사 등에 대한 학술적·통계적 타당성 제고 - 튀르키예 Konyaalt 지역 낚시쓰레기 관리 사례 및 낚시선박 관련 면허제, 어획량 관리, 어업-낚시산업 간 TAC 제도 운영, 조획 후 방류 규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 낚시관리가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벤치마킹 사례 확보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및 성과 보고 반영 계획 - 2026 MTCON 및 본 튀르키예 출장 참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및 부경대학교)과 출장 결과 공유 및 출장 결과 성과 보고 반영 - 국제적 수준으로의 우리나라 낚시산업 도약과 관련한 낚시쓰레기, 낚시어선 어획량 및 낚시어선 이용객의 제도적 관리에 대한 선진 사례 확보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선진화 전환 정책 반영 - 2026 MTCON에서의 주제 발표를 통한 우리나라 낚시정책 홍보활동으로 우리나라 낚시현황, 낚시어선 어획량 관리 및 낚시어선 이용객 지출 규모 추정 등 연구 사항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의 정보 공유 및 튀르키예 낚시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방안 발굴 기여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국제행사 발표 3건)
업무①	26.4.28.(화), Konyaalt 지역 낚시쓰레기 현장조사
수행계획	□ (오후) Konyaalt 지역 낚시쓰레기 현장조사 - 일시 : 26.4.28.(화), 14:30 - 참 석 자 : 고동훈(KMI), 부경대학교 이상철 교수, 한국수산자원공단 구성우 실장, ABB Ms. Harish Suryanarayana 등 - 수행 내용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낚시쓰레기 관리 문제가 화두가 되어, 해양수산부 “2026년 낚시어선 어획량 등 조사 사업”에서는 낚시쓰레기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해 튀르키예 Konyaalt 지역의 낚시쓰레기 현장조사 진행 · 튀르키예 Konyaalt 지역은 주요 낚시포인트가 많아 전 세계 낚시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국제적 수준의 낚시쓰레기 관리 사례를 파악하는데 적합. 해당 지역 현장조사 시 낚시쓰레기 수거·처리, 지역민과의 협업, 정부의 관리 정책 등을 중심으로 조사 진행 예정
수행결과	○ 개요 · 목적: 튀르키예 콘알트(Konyaalt) 지역 낚시쓰레기 현장조사 · 일시 : 26.4.28.(화), 14:30 · 참 석 자 : 고동훈(KMI), 부경대학교 이상철 교수, 한국수산자원공단 구성우 실장, ABB Ms. Harish Suryanarayana 등 ○ 주요 내용 · 동 지역은 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은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며, 모래가 아닌 고운 자갈로 이루어져 있고, 해변을 따라 산책로와 수많은 카페, 레스토랑이 구축되어 있음 · * 블루 플래그(Blue Flag)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교육재단(FEE)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 마리나, 관광보트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으로,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곳에만 주어지며, 보통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청정 해변'을 상징하는 지역에 부여됨 · 콘알트의 해변 입장료는 무료이며, 샤워실과 탈의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파라솔과 선베드를 대여할 경우 요금이 발생함. 주변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도 무료임 · 콘알트 해변은 '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은 아름다운 명소이나, 한때 일부 방문객이 남긴 쓰레기와 담배꽂초 등으로 인해 방문객과 지역민의 갈등이 심화된 바 있음. 최근까지 해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자치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은 꾸준히 수거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중 · 콘알트 지역의 주요 쓰레기 문제는 첫째 여름철 방문객이 급증하는 성수기의 경우 동 해변과 인근 산책로에 플라스틱, 음식물, 포장지 등이 방치되는 문제, 둘째 해변 모래와 자갈밭 사이에는 버려진 담배꽂초가 매우 많아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를 포함 · 콘알트 지역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정책 사업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거 시스템을 들 수 있음. 콘알트 해안가 주변에는 'Geri dönüşüm(게리 되늬쭈)'이라 불리는 파란색 재활용 수거함이 잘 마련되어 있고, 안탈리아 지역정부(Antalya Metropolitan Municipality)는 해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진공 청소 장비와 미화 인력을 투입하여 수시로 모래사장을 정화함. 또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로서 환경 보호 단체(EKAD, TÜRCÜV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등)와 지역 학생들의 정기적으로 해변 플라스틱 쓰레기 줍기 캠페인 및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콘알트 지역의 두 번째 정책 사업으로는 친환경 폐기물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지역정부는 '키질리(Kizilli)'라는 통합 고품 폐기물 재활용 시설 운영을 통해 동 지역에서 수거된 일반 쓰레기를 환경오염 없이 처리하며,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여 자원 순환을 이루어 내고 있음 ○ 시사점 및 활용 방안 - 콘알트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청정 해변에만 부여되는 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일부 무분별한 방문객이 남긴 쓰레기와 담배꽂초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된 바 있으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거 시스템과 친환경 폐기물 정책을 통해 동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 산업의 토대를 쌓아왔단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콘알트 지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청정 해변이 낚시 쓰레기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정책 대안을 구상해야 하는 지에 대해 벤치마킹 사례로서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업무②	26.4.30.(목), MTCON(The Conference on Managing Tourism Across Continents) 주제발표 I, II
수행계획	□ MTCON(The Conference on Managing Tourism Across Continents) 주제발표 I - 일시 : 26.4.30.(목), 14:30 - 장소 : Innvista 호텔, 안탈라, 튀르키예 - 발표명: AI-Integrated Blockchain Traceability in Food Systems Derived from Smart Aquaculture: Applications in the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 발표 및 참석자 : 부경대학교 이상철 교수, 고동훈(KMI), 한국수산자원공단 구성우 실장, 영국 Wolverhampton 대학 Roya Rahimi 교수, 튀르키예 Kapadokya 대학 Mehmet Bahar 교수 등 - 주요내용 : As big data (large-scale information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computer systems simulating human learning and reasoning) drive smart aquaculture innovation, blockchain technology (BT, a digital system for securely recording transactions) has emerged as a prerequisite for delivering trustworthy production information to end consumers in the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This study estimates Korean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WTP) for a blockchain-based traceability system in sustainable aquaculture. A nationwide online survey of 1,000 Korean consumers (aged 20–69, seafood purchasers) was conducted. A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a survey-based economic technique to determine consumer value) with eight bid levels (KRW 2,500–20,000) was employed, and WTP determinants were estimated using Stata 18's doubleb command (a statistical tool for analyzing such data). The mean WTP was estimated at KRW 7,719.59. Two behavioral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ine shopping frequency and seafood consumption frequency. However, traditional socioeconomic variables — income,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family size, and smartphone proficiency —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estimated consumer WTP for blockchain-based seafood certification using the CVM. By revealing that technology familiarity and product involvement, rather than socioeconomic status, determine WTP, the findings offer targeted policy guidance for integrating blockchain traceability into the smart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aquaculture-hospitality value chain. □ MTCON(The Conference on Managing Tourism Across Continents) 주제발표 II - 일시 : 26.4.30.(목), 15:30 - 장소 : Innvista 호텔, 안탈라, 튀르키예 - 발표명: Surveying Recreational Fishing Catch from Charter Boats in South Korea: A Methodological Overview - 발표 및 참석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구성우 실장, 고동훈(KMI), 부경대학교 이상철 교수, 영국 Wolverhampton 대학 Roya Rahimi 교수, 영국 Bournemouth 대학 Dimitrios Buhalis 교수, 튀르키예 Kapadokya 대학 Mehmet Bahar 교수 등 - 주요내용 :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ical overview of South Korea's recreational fishing catch survey from charter boats, a government-administered system designed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for total allowable catch (TAC) management and sustainable fisheries governance. The survey,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as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targets 3,887 registered charter fishing vessels across 11 provinces. A sample of 1,000 vessels is selected through stratified size-proportional systematic probability sampling.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FIRA) field investigators conduct monthly face-to-face interviews with vessel operators, collecting catch data alongside biological microdata for key species. A three-stage weighting procedure produces province-level and species-level catch estimates. The survey framework demonstrates strengths in registry-based probability sampling, a high sampling rate (approximately 25.7%), and monthly temporal coverage. Recognized limitations include restriction to charter vessels, potential recall bias from operator self-reporting, and exclusion of freshwater fishing. Structural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Marine Recreational Information Program (MRIP) highlights the system's single-frame design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English-language scholarly description of South Korea's charter vessel catch survey methodology, contributing an Asian case to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basis for recreational fishing monitoring and informing catch quota policy development.
수행결과	□ MTCON(The Conference on Managing Tourism Across Continents) 주제발표 I ○ 개요 • 일시 : 26.4.30.(목), 14:30 • 장소 : Innvista 호텔, 안탈라, 튀르키예 • 발표명: AI-Integrated Blockchain Traceability in Food Systems Derived from Smart Aquaculture: Applications in the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 발표 및 참석자 : 부경대학교 이상철 교수, 고동훈(KMI), 한국수산자원공단 구성우 실장, 영국 Wolverhampton 대학 Roya Rahimi 교수, 튀르키예 Kapadokya 대학 Mehmet Bahar 교수 등 ○ 발표 내용 • 빅데이터(대규모 정보 분석)와 인공지능(AI, 인간의 학습 및 추론 능력을 모방한 컴퓨터 시스템)이 스마트 양식 혁신을 주도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BT, 거래를 안전하게 기록하는 디지털 시스템)은 현대 및 관광 업계의 최종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생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부상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양식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지불 의향(WTP)을 추정하고, 이를 위해 수산물 구매 경험이 있는 전국 20~69세의 한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 8단계의 입찰 수준(2,500원~20,000원)을 설정하여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소비자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설문 기반의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했으며, Stata 18의 doubleb 명령어(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도구)를 사용하여 WTP 결정 요인을 추정
- 분석 결과, 평균 지불 의향(WTP)은 7,719.5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행동 변수 중에서는 '온라인 쇼핑 빈도'와 '수산물 소비 빈도' 두 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소득,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여부, 가구 구성원 수, 스마트폰 숙련도 같은 전통적인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수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 WTP를 추정하였고, WTP를 결정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친숙도와 제품 관여도라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이번 연구 결과는 스마트 양식과 환대 산업 가치 사슬에 블록체인 추적성을 통합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지침을 제공

○ 주요 논의 내용

- 이 연구는 스마트 양식(Aquaculture)과 환대·관광 산업(Hospitality & Tourism)을 연결하는 가치 사슬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 추적성(Traceability)'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가치 있는 연구라 사료됨
- 보통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소득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지불 의향(WTP)이 높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상하기 쉽지만, 본 연구는 소득, 연령 등 전통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아니라 '기술 친숙도(온라인 쇼핑 빈도)'와 '제품 관여도(수산물 소비 빈도)'가 핵심 동력임을 제시하였음
- 마케팅 대상을 단순히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으로 잡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대신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자주 구매하고, 평소 수산물 요리를 즐기는 얼리어답터 성향의 소비자"를 초기 핵심 타겟(Target)으로 설정해야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스마트폰 숙련도'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기술적 복잡성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 소비자는 그저 평소 하던 대로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마크' 하나를 더 확인하는 직관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시사함
- 수산물은 유통과정에서 고급 활어부터 가공식품, 대중적인 고등어나 명태까지 범위가 매우 넓은데, 소비자가 블록체인 이력제에 7,700원의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행동이 모든 수산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고가의 유통이나 신선도가 극도로 중요한 특정 품목에 집중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다면 정책 가이드라인이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환대 및 관광 업계(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의 최종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그렇다면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 수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요리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호텔 및 외식 대기업(B2B 구매자)'들의 지불 의향과 요구 사항도 함께 조사된다면, 스마트 양식에서 환대 산업으로 이어지는 전체 가치 사슬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Value Chain) 통합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임

□ MTCON(The Conference on Managing Tourism Across Continents) 주제발표 II

○ 개요

- 일시 : 26.4.30.(목), 15:30
- 장소 : Innvista 호텔, 안탈라, 튀르키예
- 발표명: Surveying Recreational Fishing Catch from Charter Boats in South Korea: A Methodological Overview
- 발표 및 참석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구성우 실장, 고동훈(KMI), 부경대학교 이상철 교수, 영국 Wolverhampton 대학 Roya Rahimi 교수, 영국 Bournemouth 대학 Dimitrios Buhalis 교수, 튀르키예 Kapadokya 대학 Mehmet Bahar 교수 등

○ 발표 내용

- 본 논문은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수산업 거버넌스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 관리 시스템인 '대한민국 낚시어선 레저 낚시 어획량 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개요를 제시
- 해양수산부(MOF)가 주관하는 국가승인통계인 이 조사는 전국 11개 시·도에 등록된 3,887척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하며, 표본은 층화 크기비례 계통확률 표본추출(Stratified Size-Proportional Systematic Probability Sampling) 방식을 통해 1,000척이 선정됨
-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현장 조사원들은 어선 운영자(선장)를 대상으로 매월 대면 면접을 실시하여 어획량 데이터와 함께 주요 어종에 대한 생물학적 미시 데이터(Microdata)를 수집하고, 이후 3단계 가중치 부여 절차를 거쳐 시·도별 및 어종별 어획량 추정치를 도출
- 조사 체계는 등록부 기반의 확률 표본추출, 약 25.7%에 달하는 높은 표본 추출률, 그리고 매월 이루어지는 시간적 포괄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조사 대상이 낚시어선으로 한정된다는 점, 운영자의 자기 신고에 따른 회상 편의(기억의 왜곡이나 오류) 가능성, 그리고 내수면(민물) 낚시가 제외된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인정됨
- 미국의 해양레저정보프로그램(MRIP)과의 구조적 비교를 통해 본 조사 시스템이 가진 단일 프레임 설계(Single-frame design) 특성을 강조함
-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낚시어선 어획량 조사 방법론을 영문 학술지에 최초로 기술함으로써, 레저 낚시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적 비교 분석에 아시아 사례를 기여하고 어획 쿼터(할당량)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주요 논의 내용

-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레저 낚시(낚시어선) 어획량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국가 자원 관리 정책과 연결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그동안 해양 레저 및 스포츠 낚시(Recreational Fishing) 어획량 관리 연구는 미국의 MRIP(해양 레저정보프로그램)나 유럽의 사례가 주를 이루어 왔지만, 이 연구는 한국 해양수산부(MOF)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이 주관하는 독자적인 통계 체계를 세계 학회에 최초로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제 비교 연구의 스펙트럼을 아시아 지역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음.
- 전체 등록 선박의 25.7%에 달하는 1,000척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층화 크기비례 계통확률 표본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추출' 방식을 명확히 규명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에 비해 통계적 대표성과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학술적으로 증명한 것임 • 과거 수산자원 관리는 주로 상업적 어선 어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레저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소비하는 어획량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음 • 본 연구는 국가가 레저 어획량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추정(3단계 가중치 부여 절차)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상업 어업과 레저 어업을 아우르는 '통합 수산자원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지적했듯 현재 시스템은 '등록된 낚시어선(Charter boats)'이라는 단일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어, 방파제나 갯바위 등에서 이루어지는 '도보 낚시'나 '개인 보트 낚시'의 어획량이 누락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미국의 MRIP처럼 '선박 명부 조사 + 일반 가구/개인 전화·모바일 조사'를 결합한 다중 프레임 설계로 확장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회상 편의(Recall Bias)를 줄이기 위한 기술 융합: 선장의 기억에 의존하는 매월 대면 면접은 기억의 왜곡이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는 '낚시 앱을 활용한 자발적 어획 신고 시스템'이나 'AI 기반 어종/크기 자동 인식 기술'을 정부 통계 체계와 어떻게 링크(Link)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가 추가된다면 정책적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업무③	26.5.1.(금), MTCON(The Conference on Managing Tourism Across Continents) 주제발표 III
수행계획	□ MTCON(The Conference on Managing Tourism Across Continents) 주제발표 III - 일시 : 26.5.1.(금), 14:30 - 장소 : Innvista 호텔, 안탈라, 튀르키예 - 발표명: National Survey of Marine Recreational Fishing Effort and Expenditure: the Case of South Korea - 발표 및 참석자 : 고동훈(KMI), 부경대학교 이상철 교수, 한국수산자원공단 구성우 실장, 영국 Wolverhampton 대학 Roya Rahimi 교수, 튀르키예 Kapadokya 대학 Mehmet Bahar 교수 등 - 주요내용 : This paper presents the survey design and methodology of South Korea's first national-level survey on marine recreational fishing (MRF) efforts and expenditures, conducted annually since 2022 as a subsidiary component of the national fishing catch survey, and discusses its distinctive features through comparisons with the U.S. NOAA Marine Recreational Information Program (MRIP). The survey employs a structured questionnaire targeting adults who used commercial fishing boats for MRF. The instrument comprises three parts covering fishing experiences, activities, and expenditures across seven core questions. A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with the NOAA expenditure survey structure. The Korean survey incorporates three design features absent in Western counterparts: a Korea-specific definition of fishing boats, a dual classification of direct on-board fishing and offshore rock fishing, and an explicit separation of per-trip variable costs and annual fixed costs.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systematic academic report on a national MRF survey methodology from a non-Western country, offering a reference model for countries seeking to establish similar survey systems in the future.
수행결과	○ 개요 • 일시 : 26.5.1.(금), 14:30 • 장소 : Innvista 호텔, 안탈라, 튀르키예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발표명: National Survey of Marine Recreational Fishing Effort and Expenditure: the Case of South Korea
- 발표 및 참석자 : 고동훈(KMI), 부경대학교 이상철 교수, 한국수산자원공단 구성우 실장, 영국 Wolverhampton 대학 Roya Rahimi 교수, 튀르키예 Kapadokya 대학 Mehmet Bahar 교수 등

○ 발표 내용

- 본 발표는 2022년부터 국가 낚시 어획량 조사의 부속 구성 요소로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단위 해양 레저 낚시(MRF) 참여량 및 지출 조사'의 조사 설계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해양레저정보프로그램(MRIP)과의 비교를 통해 이 조사 체계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음
- 이 조사는 해양 레저 낚시를 위해 낚시어선(낚시배)을 이용한 성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함. 조사 도구는 낚시 경험, 활동, 지출의 세 부분으로 나뉜 총 7개의 핵심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미국 NOAA의 지출 조사 구조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 한국의 조사 체계는 서구권의 조사에는 없는 세 가지 설계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째, 한국 고유의 '낚시어선' 정의를 적용한 점, 둘째, 선상 낚시(직접 승선)와 종선 낚시(갯바위 등 하선)를 이원화하여 분류한 점, 셋째, 출조 건당 발생하는 가변 비용과 연간 지출되는 고정 비용을 명확하게 분리한 점임
- 본 연구는 비서구권 국가에서 이루어진 전국 단위의 해양 레저 낚시 조사 방법론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학술 발표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유용한 참조 모델(Reference Model)을 제공

○ 주요 논의 내용

- 제시한 내용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단위 해양 레저 낚시(MRF) 참여량 및 지출 조사 체계를 다룬 학술 발표로, 앞서 검토했던 어획량(Catch) 조사 논문과 연작(Series)이거나 동일 연구진의 연속적인 연구로 보이며, 이번에는 '경제적 효과(지출)'와 '참여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연구는 수산자원 관리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레저 낚시의 경제적 가치(지출)와 활동 참여량'을 전국 단위로 구조화하고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 레저 낚시 활동 및 지출 조사는 주로 미국(NOAA)이나 유럽 등 서구권 중심으로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비서구권 국가에서는 최초로 국가 수준의 해양 레저 낚시 조사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아시아를 비롯한 타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참조 모델(Reference Model)'을 선제적으로 제시
- 미국의 MRIP(해양레저정보프로그램) 체계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① 한국 특유의 낚시어선 정의, ② 선상 낚시와 갯바위/선외기 낚시의 이원화 분류, ③ 출조별 가변 비용과 연간 고정 비용의 명확한 분리 등 한국의 독특한 낚시 문화와 유통 구조를 반영한 3가지 설계적 특징을 도출한 점이 매우 뛰어난 독창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레저 낚시는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 여겨졌지만 2022년부터 매년 축적된 이 지출 데이터를 통해, 레저 낚시가 어촌 경제 활성화, 장비 산업, 해양 관광업 등에 미치는 전방위적 경제적 파급효과(Economic Impact)를 가시적인 숫자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음. 이는 관련 예산 확보나 어촌 뉴딜 정책 수립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 될 수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 거버넌스로의 전환: 어획량 조사가 '규제(TAC, 쿼터제)'를 위한 것이라면, 본 지출 및 참여량 조사는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낚시인들이 어떤 항목(선비, 숙박, 식비, 장비 등)에 비용을 많이 쓰는지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해양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출조할 때마다 드는 비용(가변 비용)과 낚시대 구매나 보트 유지비 같은 연간 비용(고정 비용)을 분리한 설계는 매우 정교한 접근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출조 건당 한계 지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 통계적 왜곡을 크게 줄였을 것이라 사료됨								
업무④	26.4.29.(수), Research 워크숍 참석 및 낚시어선 어획량 해외사례 전문가 자문								
수행계획	□ Research 워크숍 참석 - 일시 : 26.4.29.(수), 09:30~10:30 - 장소 : Innvista Hotel, 안탈라, 튀르키예 - 참석자 : 고동훈 (KMI), 이상철 (부경대학교), Yu Viviane Chen (Farmingdale State College, USA), Yonca Bakır (Harran University, Türkiye), Shuxu Liu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SAR China), Fei Hao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SAR China) 등 - 프로그램: <table border="1"> <thead> <tr> <th>시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09:00</td><td>Time Travel in Immersive VR Communication to Promote Sustainability Awareness Among Young People, Yu Viviane Chen (Farmingdale State College, USA)</td></tr> <tr> <td>09:30</td><td>The Real Impact of the Virtual World: The Effect of Metaverse Awareness on the Corporate Image of Hotel Businesses, Yonca Bakır (Harran University, Türkiye)</td></tr> <tr> <td>10:00</td><td>Advancing hospitality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through avatar-led training, Shuxu Liu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SAR China) and Fei Hao,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SAR China)</td></tr> </tbody> </table> □ 낚시어선 어획량 해외사례 전문가 자문 - 일시 : 26.4.29.(수), 14:00~15:30 - 장소 : Innvista Hotel, 안탈라, 튀르키예 - 내용 : 해양수산부 「2026년 낚시어선 어획량 조사 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이행을 위해 낚시선박에 대한 면허제, 어획량 관리, 어업-낚시산업 간 TAC 제도 운영, 조획 후 방류 규정 및 낚시선박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한 해외 전문가 자문 실시 - 참석자 : 고동훈 (KMI), 이상철 (부경대학교), 한국수산자원공단 구성우 실장, Yu Viviane Chen (Farmingdale State College, USA), Yonca Bakır (Harran University, Türkiye), 영국 Bournemouth 대학 Dimitrios Buhalis 교수, 등	시간	내용	09:00	Time Travel in Immersive VR Communication to Promote Sustainability Awareness Among Young People, Yu Viviane Chen (Farmingdale State College, USA)	09:30	The Real Impact of the Virtual World: The Effect of Metaverse Awareness on the Corporate Image of Hotel Businesses, Yonca Bakır (Harran University, Türkiye)	10:00	Advancing hospitality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through avatar-led training, Shuxu Liu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SAR China) and Fei Hao,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SAR China)
시간	내용								
09:00	Time Travel in Immersive VR Communication to Promote Sustainability Awareness Among Young People, Yu Viviane Chen (Farmingdale State College, USA)								
09:30	The Real Impact of the Virtual World: The Effect of Metaverse Awareness on the Corporate Image of Hotel Businesses, Yonca Bakır (Harran University, Türkiye)								
10:00	Advancing hospitality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through avatar-led training, Shuxu Liu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SAR China) and Fei Hao,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SAR China)								
수행결과	□ 주제: Time Travel in Immersive VR Communication to Promote Sustainability Awareness Among Young Peopl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주요 내용

- 오늘날 관광 기업, 여행지, 학계에서 '지속 가능성'과 이를 전달하는 소통(Sustainability Communication)은 윤리적 의무가 되었음
- 그러나 가상현실(VR) 도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지식을 총체적으로 전달하고, 실제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본 연구는 인간의 행동 의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심리학 이론의 결합을 기반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축
- 계획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 환경행동이론 (Theory of 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동의 동기와 가치를 다룬 이론
- 본 연구는 44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편의 표본(Convenience Sample)을 대상으로 혼합 연구 방법론(Mixed Method Approach)을 활용하였으며, 학생들이 VR 학습 환경(VRLE)을 경험하기 전과 후에 설문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여 이들의 태도, 인식 수준, 의도된 행동의 변화를 비교·측정
- 초기 분석 결과, VR 학습 환경을 경험한 후 사용자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먼저 지각된 행동 통제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의 변화로 사용자가 '나의 행동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느끼는 인식이 유의미하게 달라졌음
- 다음으로는 결과 인지(Awareness of Consequences)로서, 자신의 여행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결과와 영향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음
- VR 기술이 지속 가능한 여행 행동을 촉진하고 환경 인식을 높이는 유망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나, 44명이라는 소규모 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증과 후속 연구가 필요

○ 논의 사항 및 시사점

- 기존의 텍스트나 2D 영상 기반의 캠페인은 정보 전달에 그쳐 이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VR은 사용자에게 높은 실재감(Presence)과 몰입감을 제공
- 자신이 내린 선택(예: 탄소 배출이 많은 교통수단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를 눈앞에서 입체적으로 목격하게 함으로써, "결과 인지(Awareness of Consequences)"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가 가진 가장 큰 의의라고 여겨짐
- 본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VR을 쓰니 효과가 좋았다"라는 기술 찬양론에 그치지 않고, 계획행동이론(TPB)과 환경행동이론(ESB)이라는 검증된 심리학적 프레임워크를 가져와 기술의 효과를 입증하려 했다는 점임
- 본 연구는 44명의 학생(Convenience Sample)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중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 외에 중장년층 여행객에게도 VRLE가 효과적일지 검증이 필요

□ 주제: The Real Impact of the Virtual World: The Effect of Metaverse Awareness on the Corporate Image of Hotel Businesses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주요 내용

-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실과 디지털 환경을 융합한 몰입형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가 부상하고 있으며, 관광 및 환대(Hospitality) 산업에서 메타버스는 목적지 홍보, 가상 서비스 체험, 고객 소통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음
- 본 연구는 소비자의 메타버스 인지(Metaverse Awareness)가 호텔 기업의 지각된 기업 이미지(Corporate Imag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함
- 메타버스는 잠재 고객이 여행 전에 호텔과 목적지를 가상으로 둘러보고(Try before you buy), 서비스를 미리 체험하여 더 고도화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데, 이는 소비자의 즐거움(쾌락적 동기)과 실용적 동기를 동시에 충족하며 브랜드와 정서적 연결을 형성
- 기업 이미지는 스테이크홀더들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지각으로, 환대 산업에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310명을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Simple Random Sampling) 진행 (최종 분석에는 이상치 등을 제외한 300명의 응답 활용)
- 메타버스 인지 척도(15문항)와 기업 이미지 척도(7문항)를 결합한 22개 리커트(Likert) 유형 문항 및 사전 메타버스 경험 여부 질문 활용하여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20개 문항 분석
- 메타버스 인지와 기업 이미지 간에는 중간 수준의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메타버스에 대한 인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호텔 브랜드에 대해 더 우호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
- 메타버스가 브랜드 인식을 형성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전히 서비스 품질, 고객 경험, 신뢰 등 전통적인 요인들이 기업 이미지 형성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논의 사항 및 시사점

- 메타버스의 '후광 효과(Halo Effect)' 실증이 연구의 가장 큰 가치는 "소비자가 메타버스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호텔의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임
- 연구 결과에서 메타버스 인지가 기업 이미지 변량의 17.6%를 설명한다는 부분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는데, 기술은 보조 수단일 뿐, 메타버스가 분명 매력적인 마케팅 도구이긴 하지만, 기업 이미지를 결정하는 나머지 82.4%는 결국 전통적인 요인들(실제 서비스 품질, 고객 응대, 객실의 청결도, 브랜드에 대한 신뢰 등)이라는 의미가 있음
- 메타버스 안에서 아무리 화려한 가상 호텔 투어를 제공하더라도, 현실의 오프라인 호텔 서비스가 부실하다면 기업 이미지는 추락할 수밖에 없음. 기술 과몰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영리한 분석 결과라 사료됨
- 본 연구는 메타버스를 단순한 '일시적 유행(Hype)'으로 치부하지 않고, 환대 산업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잘 짚어냈으며, 호텔 경영자라면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호텔의 오프라인 강점을 어떻게 가상 공간에 녹여내어 브랜드 이미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유익한 연구라 사료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주제: Advancing hospitality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through avatar-led training

○ 주요 내용

- 환대(Hospitality) 산업은 다양한 문화적·인구통계학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일하는 곳으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생태계 유지에 매우 중요
- 본 연구는 메타버스 기술과 '아바타(Avatar)'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DEI 교육 솔루션을 제시
- 가상 환경 내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디지털 대리인을 넘어, 타인의 삶이나 입장을 대변하는 문화적 매개체(Cultural Mediators) 역할을 수행
- 메타버스의 강점인 '실제와 유사한 상호작용 복제 능력'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가상 공간에서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DEI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여
- 텍스트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성원들이 DEI 개념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깊이 공감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유도
-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면 물리적 공간이나 고비용의 전문 강사 없이도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 교육 솔루션을 전 직원에 대량으로(Universal deployment) 제공할 수 있음. 이는 특히 자원이 부족했던 중소기업(SME)의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줌
- 아바타 주도 메타버스 교육은 환대 산업의 고질적인 DEI 교육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환점을 제시

○ 논의 사항 및 시사점

- 본 논문은 테크놀로지를 '조직 내부의 지속 가능성(ESG 중 Social 요인)'으로 수렴시켰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활용의 가장 성숙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음
- 많은 기업이 다양성 교육(DT)을 실시하지만, 대개 인사과(HR)의 연간 의무 과제를 해치우기 위한 '체크박스 채우기식' 주입식 교육에 집중되어, 텍스트나 2D 영상 교육은 학습자를 방관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음
- 반면,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한 롤플레이팅이나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면 학습자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 나와 다른 인종, 성별, 신체적 조건을 가진 아바타의 관점을 직접 경험하거나, 가상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차별(Microaggression) 상황을 인터랙티브하게 마주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몰입감은 기존 교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음. 즉, 이론적 이해를 넘어 '정서적 공감(Empathy)'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이 모델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현실적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데, DEI를 가르치기 위한 아바타 자체가 또 다른 고정관념이나 편향된 디자인으로 설계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함
- 또한 환대 산업의 현장직(Housekeeping, 조리, 발레파킹 등)에는 디지털 기기 조작이나 가상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이나 이주 노동자 비율이 높는데, 이들이 아바타 주도 교육 시스템에 진입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술적 장벽을 낮추는 UX/UI 디자인이 선행되어야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함

□ 낚시어선 어획량 해외사례 전문가 자문

○ 개요

일시 : 26.4.29.(수), 14:00~15:30

장소 : Innvista Hotel, 안탈랴, 튀르키예

내용 : 해양수산부 「2026년 낚시어선 어획량 조사 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여행을 위해 낚시 선박에 대한 면허제, 어획량 관리, 어업-낚시산업 간 TAC 제도 운영, 조획 후 방류 규정 및 낚시선박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한 해외 전문가 자문 실시

참석자 : 고동훈 (KMI), 이상철 (부경대학교), 한국수산자원공단 구성우 실장, Yu Viviane Chen (Farmingdale State College, USA), Yonca Bakır (Harran University, Türkiye), 영국 Bournemouth 대학 Dimitrios Buhalis 교수, 등

○ 논의 내용

- 튀르키예는 삼면이 바다(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고, 내륙에는 수많은 호수와 강이 흐르고 있어 여가 낚시의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음
- 튀르키예 정부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엄격한 금어기와 포획 가능 크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봄~여름철(보통 4월 중순~8월 말)에는 일부 상업적 어로 활동이 금지되며, 레저 낚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튀르키예의 TAC 제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특정 어종의 연간 최대 어획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 체계이며, 튀르키예의 수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산물법 제 1380호(Fisheries Law No. 1380)에 기반을 두고, 유럽연합(EU)의 공동어업정책(CFP) 기준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제도를 고도화 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연근해 주요 어종 상당수에 TAC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과 달리, 튀르키예는 특정 상업용 주요 어종 및 국제기구의 규제를 받는 어종 위주로 TAC와 쿼터(Quota) 제도를 운영
- 튀르키예 바다 수산자원 어획량의 약 60~70%는 멸치류(Anchovy, 햄시)가 차지하고 있어 단일 어종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 때문에 전반적인 TAC 시스템은 지중해수산위원회(GFCM) 및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등의 국제기구 표준을 따름. 참다랑어(Bluefin Tuna) 및 황새치의 경우 ICCAT가 할당한 국가별 쿼터에 맞춰 엄격한 TAC가 적용되며, 대구(Turbot) 및 샛멸(Sprat)의 경우 흑해 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연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음
- 한편 자국 연안 주요 어종: 멸치(Anchovy)나 고등어류 등은 매년 농림축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가 수산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시(Circular)를 통해 어획 시기, 크기 제한, 어구 규제와 함께 쿼터를 조절
- 튀르키예 TAC 제도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상업용 어선뿐만 아니라 낚시인(외국인 관광객 포함)에게도 일일 어획량 한도 형태의 TAC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임
- 튀르키예 규정에 따르면 비상업적 목적의 낚시인은 1인당 하루 최대 5kg까지만 낚시가 가능하고, 취미로 잡은 낚시어획물을 단 1kg이라도 시장이나 식당에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됨.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은 물론 추방(Deportation) 조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치까지 내려질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이 매우 강함 • 튀르키예는 자원 보존을 위해 어획량 제한(TAC)을 넘어선 극단적인 레드 리스트(Red List)와 포상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데, 개체 수가 급감한 블랙 그루퍼(Black Grouper) 등은 전면 포획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수산물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벌금이 부과됨. • VMS(어선위치추적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형 상업용 어선에는 위치와 어획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방지하고 TAC 이행률을 높이고 있음 ○ 시사점 • 튀르키예는 삼면이 바다(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고, 내륙에는 수많은 호수와 강이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낚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소유 • 튀르키예의 경우 특정 상업용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TAC와 쿼터(Quot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낚시인에게도 일일 어획량 한도 형태의 TAC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 등은 그간 낚시 제도에 있어 외국인의 낚시 행위를 간과한 우리나라 낚시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낚시 문화가 건전하고 세계적인 낚시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세계적 수준의 선진 낚시지역을 방문하여, 관련 사례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적절한 벤치마킹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튀르키예의 낚시 및 어업 관리 사례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낚시문화 육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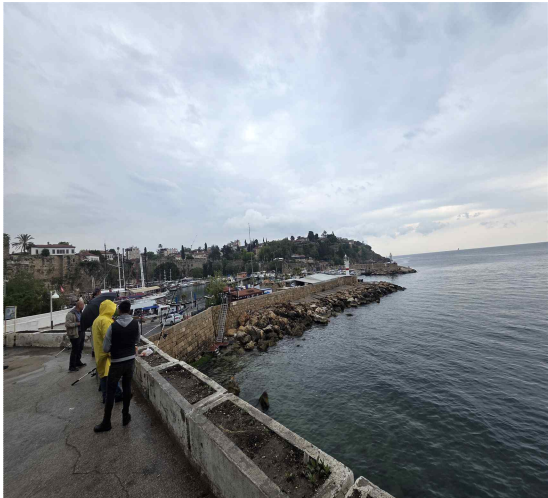
<2026 MTCON 참가자 등록>



<2026 MTCON 오리엔테이션 참석>



<튀르키예 Konyaalt 낚시쓰레기 현장조사 I>



<튀르키예 Konyaalt 낚시쓰레기 현장조사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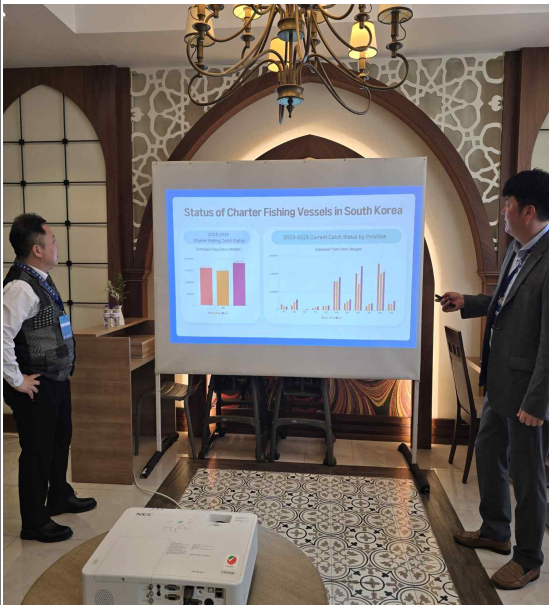


사진자료

<2026 MTCON 주제발표 I>



<2026 MTCON 주제발표 II>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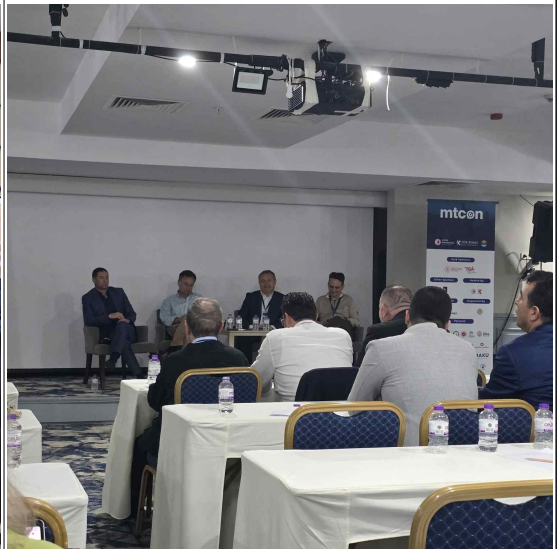
<2026 MTCON 주제발표 III>



<튀르키예 안탈라 낚시선박 조사>



<2026 MTCON 세션 참석>



<튀르키예 안탈라 낚시어획량 조사>

